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不二(38x45) • 이가은

* 이가은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5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부처님 오시는 날
일요특강	13	노인이 웃는 세상 ①
따뜻한 이야기	18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옛날의 금잔디	20	청춘을 돈과 바꾸겠다니
아름다운 마무리	26	소득이 없지만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숨어서 피는 꽃	28	벚꽃도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32	내가 하는 말 구분해보기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35	전환점
운명보다 강한 열정	38	영의정을 18년 지낸 황희 정승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40	깨달음의 길이 열린 '부처님오신날'
자비 나눔 우리는 하나	42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43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5월 1일 발행 / 통권 255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부처님 오시는 날

글·법 정(法 頂)

부처님 오신 이 날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도 사찰에 올 일이 없고 또 여러분도 절에 다닐 인연이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남이지만 '오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영향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이 없다면 이런 절도 없고, 이런 자리도 마련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화창한 봄날 함께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에서 부처님 같은 뛰어난 성인이 계시지 않았다면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요? 부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노자, 장자 등 인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스승들이 안 계셨다면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일찍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현재의 나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에게 의지처가 있다는 것, 귀의처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삶은 중심을 잃고 끝없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신앙을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신앙 덕분에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부처님 법을 만나

게 된 인연이 다행스럽고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이기 때문에 제 말보다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전을 몇 구절 함께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는 경을 한데 모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절이 기원정사(禪園精舍)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안거를 했고, <숫타니파타>를 비롯해 근본 경전인 <아함경>과 대승경전(부처 사후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편찬된 경전들)인 <금강경>을 이 기원정사에서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행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인간 삶에 으뜸가는 행복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숫타니파타>의 ' 으뜸가는 행복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은 그 경에서 몇 구절 뽑아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지 말고
어진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이런 경전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어리석은 요소는 없는가? 나는 선한 인간과의 대열에 들 수 있는가?

인간은 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이슬비 속에서 서서히 옷이 젖듯이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대로, 또 나쁜 친구는 나쁜 친구대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관계 속에서 거듭거듭 형성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어리석어집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술꾼과 어울리면 술을 마시지 않

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기 자신도 지혜로워집니다.

삶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존경의 요소가 움트는 일입니다.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는 인생은 삭막한 인생입니다.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바른 서원을 세우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나라.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몫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남의 자리를 훔내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삶이 소멸됩니다. 자기다운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배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공덕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맑은 눈빛, 다정

한 얼굴, 부드러운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원은 삶의 지표와 같은 것입니다. 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원의 힘이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휩쓸려 넘어갑니다. 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이며 이웃과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큰 원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욕구라 해도 개인적인 것은 욕심이고, 공동체적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원입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일체의 고난과 재난을 건넌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든 중생의 고통과 재난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건넌다는 말은 곧 건진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자기 자신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벗어난 세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타

인에게 헌신함으로써 나 자신도 구제를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원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나라.

오늘날에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 함께 식사하는 일조차 없습니다. 우리말의 ‘식구’는 한술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술밥을 먹는 사람들이 한술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 부부가 한집에서 따로 밥을 해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은 차디찬 가옥이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따뜻한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밖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하는 장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주는 곳이 가정입니

다. 가정이 해체된 가옥엔 치유의 길이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으며, 더 이상 설 곳이 아닙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말년에 외롭게 지냈기 때문에 동양의 대가족 제도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불편하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져 지냅니다. 어버이날에나 한 번 씩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고, 어쩌다 외식이나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가족 단위의는 다르겠지만 현대사회라고 해서 가정의 틀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나라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그것을 무시하고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일에 질서가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에게 질서가 없

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베푸는 것을 수직관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습니까? 부모와 사회와 친구에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무수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으며 삽니다. 그런 도리를 안다면 스스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길, 인간의 도리에 맞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비난받지 않게 처신하라.’ 사람이 인색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어 갖고 인간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한다면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맑히려고 따로 노력할 것 없이, 악한 일 하지 않고 선한 일 하면 스스로 마음이 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남과 나누어 가질 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가 바로 맑아진 상태입니다.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지만, 적당을 넘어서면 술이 술을 불러서 취하게 합니다. 지금 병원마다 간이 망가져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평생 쓸 장기를 독한 알코올에 늘 담아 두었기 때문에 간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갖고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스스로 술에다 정신을 절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덕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덕행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남과 나누어 가질 때 덕이 쌓입니다. 그때 겹겹으로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이미 열려 있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열려 있는 세상은 나와 무연(無緣)합니다.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상황 탓에, 세상이 잘못되고 누군가가 나빠서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답게 삶을 자주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맑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데, 누구 탓을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내 마음이 구겨집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잘 풀립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뒤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언론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식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론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가르침을 들으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이 시대에는 누구를 존경하거나 겸손을 지니는 미덕들이 거의 사라

졌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갖든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옛날 우리가 흙을 가까이하고 살던 농경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면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삶의 질은 부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그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엇이 남겠습니까? 집, 재산, 자동차, 명예, 다 헛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세상과 작별할지 모릅니다.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다음 순간을 누가 압니까? 과연 내가 생을 살아오면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허망하고, 한때 걸쳤던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나눔, 알게 모르게 쌓은 은덕, 이것만이 내 생의 잔고로서 남습

니다.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전통적인 인도 사람들 생각에 의하면 내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종자가 됩니다. 내생에 내가 받아 쓸 씨앗입니다. ‘때로는 가르침을 들으라.’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리 걸음하고 관념화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눈쁜 사람들, 지혜로운 스승들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자기 삶을 거듭 충전하고 새롭게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 편안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나라.

세상의 복잡한 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념이 확실한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평소 세운 원과 나누어 가진 덕행의 잔고가 있기에 세상

사에 부딪쳐도 중심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지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정하고 평화롭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나라.

이것이 불타 석가모니의 행복론입니다. 부처님은 <숫타니파타>의 ‘천한 사람’ 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승려가 한 집에 걸식을 하려고 막 들어섭니다. 그러자 바라문이 화를 잔뜩 내면서 “이 까까중놈아, 이 엉터리 사문아!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있거라, 이 천한 놈아!” 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대승경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초기 경전이어서 사실 그때

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어떤 것이 천한 사람인가를 낱말로 설명한 뒤 이렇게 덧붙입니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날 때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는 신분의 벽이 높은 사회였습니다. 2,500년 전의 세상입니다. 바라문이니 제2계급인 크샤트리아니 날 때부터 가문에 의해 주어 진 세습화된 신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날 때부터 귀족과 천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귀족도 되고 천민도 될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을 눈쁜 사람, 널리 보시는 분, 깨달은 사람, 지혜의 눈이 열린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부처님을 가리켜 ‘양족존(兩足尊)’이라고 합니다. 두 발 가진 생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뜻

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처님오신날이 과거완료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신 날'이라는 것은 이미 오셨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엔 종교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려면 '오신 날'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오신 날'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시는 날'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신 날'은 과거완료형이고 '오시는 날'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부처의 씨앗을,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활짝 열리면 저마다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길을 가리키는 스승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의 불성을 일깨

우고 꽃피워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불자들은 각자의 시대 부처의 분신임을 자각하고 자신이 부처의 한 화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날마다 '오시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초록이 눈부신 이 좋은 날, 침묵의 대지에서 저마다 살아 있음을 꽃과 잎으로 마음껏 펼쳐 보이는 이 계절, 다들 복 받으십시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부처가 되어 한뭉싹 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 일기일회(一期一会)

노인이 웃는 세상 ①

글 • 황창연

제가 불교와 인연을 처음 맺게 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전국을 한번 돌아보아 줬다면,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 계신 부처님을 봤는데 평생 처음으로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자한 표정을 가지신 살아있는 부처님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1,500년 전에……. 그런 것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수업 과목 중에 불교학이 있었습니다. 불교학의 교수님은 스님이었고, 스님이 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강의하셨던 스님인데 요즘 불교방송에 나오셔서 설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스님을 통해서 불교를 참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노인이 웃는 세상, 행복한 노년'이란 주제로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즘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터키라는 나라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극락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95%라고 합니다. 미국은 천당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9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4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죽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미국에 가보면 아내가 죽어도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묻어 놓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어

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 내 일이 잘될 것 같아.” 죽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아내 무덤에 놓으면서 “당신이 도와줘서 그런지 일이 너무 잘 됐어 고마워”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본인이 죽는 것도 싫어하지만 일단 죽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아주 산 속 깊은 곳에 파묻어 버리고 일 년에 기껏해야 3번 정도 찾아갑니다.

남미 5개 나라 강연을 다녀왔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칠레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공동묘지 주변 주택가라고 합니다. 공동묘지를 빙 둘러서 주택가가 있고,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공동묘지로 놀러갑니다. 아르헨티나는 무덤이 우리처럼 땅속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서 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일 날이 되면 관을 꺼내서 닦아주

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둠이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 땅값이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도 맨해튼과 퀸즈 사이에 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강남하고 강북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있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죽음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부정을 타고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밀어내다보니 죽음을 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은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무려 1,500만 명이 됩니다. 그 중 10% 정도가 죽었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그 빛이 너무 따뜻하더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1970년대부터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심폐소생술이 발달해서입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들을 5%는 살려낸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대개 너무 좋은데 갔다 왔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불교신자가 전체 인구 중 80%인데 지장보살을 굉장히 높이 생각합니다. 지장보살님은 ‘나는 지옥에 단 1명이 남아있더라도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신 분인데,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에 가는 기준은 착한 일을 한 공덕과 나쁜 짓을 한 악행을 저울질해서 착한 쪽이 올라가면 천국이고 나쁜 쪽이 올라가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가 천당에 갈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 자식, 부모를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생이별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지장보살님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동료 신부 부모님이 84세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한다고 관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시간 되는대로

부모님과 식사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20년 후에 100세를 넘기고 돌아가시면 안 슬플 겁니다. 그땐 아마 축복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잘 사시다 가셨다고……. 그런데 35살 애기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5살짜리 애를 낳두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건 슬픈 일입니다. 이 사람은 뭘 못하고 죽은 거죠? 도리, 사랑을 못하고 죽은 겁니다. 자녀 모두 결혼시키고나면 부부가 뭐라고 얘기할 거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한이 없다. 할 도리를 다했으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할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도리를 못하고 죽으면 한이 되는 겁니다. 또 ‘내 나이가 60인데 남편 빛 갚느라고, 일요일 없이 뼈가 부셔져라 일만 했어요. 자식 교육 때문에 만 원 넘는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빛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우고 나도 이제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근데 속이 안 좋고 목이 당겨서 병원을 가 봤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 이분은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이제 호강 한번 해보려 했더니 나보고 죽으라면 난 못 죽는다고 할 겁니다.

행복도 나중에 행복한 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맛 있는 거 사먹고 싶으면 지금 사먹어야 되고, 여행을 가보고 싶으면 지금 가봐야 하는 겁니다.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결국 다 놓고 갈 건데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것처럼 꼭 쥐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행복하면 이 별이라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충만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 억울한 것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산 사람들입니다. 살아 있을 때 산 것처럼 산 사람들은 죽을 때도 미련 없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즐길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의 사라짐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 잊혀진

다는 것이 슬픈 겁니다. 내가 마흔 살인데 병원에 1월에 갔더니 3월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느닷없이 진달래가 보고 싶어집니다. '진달래가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지. 벚꽃이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지…….' 하면서 슬퍼합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서 암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환자가 암 진단을 받고나서 영등포역에 딱 섰는데 온 세상이 아름답다워 보이더랍니다. 리어카에 박스를 실어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랍니다. 저 할아버지는 저렇게 건강해서 생명을 유지하는구나! 포장마차에서 땀을 흘리면서 어묵을 팔고 떡볶이를 뒤집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자 뛰어드는 사람들이 찬란해 보이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그렇게 슬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 하나를 알려드

리겠습니다. '인간은 죽기 전까지 절대 안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스스로 당겨서 죽습니다. 작년 8월에 생태마을에 자매 한 분이 왔습니다. 58세에 직장암에 걸렸는데 대장까지 다 퍼진 상태였고 몸무게가 30kg이었습니다. 저희 생태마을은 암환자는 더 이상 받지 않는데 이 분이 '내 남은 두 달을 병원에서 보낼 수 없다. 경치 좋은데서 살다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생태마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어가는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나 싶어 두 달간 입소를 허락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라.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산다면 그것도 충분하다.' 그랬더니 두 달 동안 밥을 못 먹었던 이분이 밥을 나보다 더 잘 먹는 겁니다. 밥이 맛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이 되어 방을 빼야 되는데, 방 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두 달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살아 있는 겁

니다. 그러다 12월에 원주에 영화를 보러 나갔는데 하필 시리즈 영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후편이 나오면 보러 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2월에 만났는데, 처음에 봤던 검은 얼굴이 복사꽃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암세포가 다 사라져서 병원에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10년을 살면 뭐합니까? '매일 죽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라고 하는 사람보다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죽는 날 즐겁게 죽으면 됩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알차게 산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2014년 8월 31일

황창연 신부 초청 일요특강 정리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지금은 누구에게도 어색하지 않은 ‘어린이’란 단어.

어린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고 티 없이 밝게 자라길 바랐던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 90여 년 전 지어진 단어입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은 나라 잃은 설움에 기쁨까지 함께 잃어갔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다 보니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형편이 어려워올수록 아이들이 잘 자라야 나라의 장래가 밝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와 같이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하는 뜻이 담긴 ‘어린이’라는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의 아이들 사랑은 단 하루라도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어른들에게 대접받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쁨 가득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방정환 선생의 노력으로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제정되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이날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전단 12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그는 전단에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하십시오. 어린이를 절대 욕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등의 당부를 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세상을 떠나던 날에도 아이들의 오늘과 미래를 염려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어린이를 위하여 좀 더

힘쓰지 못하고 가니 미안하다.”

방정환 선생의 이러한 노력 덕에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고, 동시에 「어린이헌장」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세상을 지키고 일 키우는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밝아야 세상의 장래도 밝고, 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우리가 사는 삶도 귀해지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오늘 무심코 한 행동이 있었나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 출처 : 따뜻한 하루

청춘을 돈과 바꾸겠다니

글 • 윤언덕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이 많으면 나쁜 일이 생기는 법이다. IMF로 상징되었던 그해, 좋은 일은 끝나고 나쁜 일이 몰리기 시작했다.

흔히들 직장생활의 운(運)은 좋은 상사를 만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초급 사원 시절에는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간 중요하겠지만, 부하를 거느리는 상사 자리에서는 좋은 부하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평소 나의 생각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무슨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철강공업의 다각적인 전략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동해안의 제철공장에서 설립한 공대

를 졸업한 부하 직원이 있었다. 서글 서글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었고 아나나 다를까 하나를 지시하면 두세 가지를 만들어 오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반드시 고쳐야 할 단점이 있었다. 근태(勤怠) 문제였다. 아침에 직원들을 모아 놓고 조회나 회의를 하려고 하면 항상 보이지 않는 이가 그였다. 그러다 업무가 시작된 후 30분 정도가 지나면 머리를 숙이며 살짝 자리에 앉아 항상 늦게 근무를 시작하는 그를 쳐다보는 것은 고역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IMF가 오기 전 그때도 나는 부하 직원에게 질책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도모하는 것보다 칭찬을 통한 레벨 업(Level - up)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는 부류다. 그래서 작성한 서류나 업무 진척사항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잘한 부분을 칭찬하면서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었다. 당시 내가 몸담았던 회사의 대부분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딱딱하고 일방적인 지시로 업무를 진행하며 자신의 지시 사항에 맞지 않으면 냉정하고 비인간적으로 야단치기 일쑤였지만 적어도 '나' 하나만은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다. 직장 관계는 순간이겠지만 인간관계는 영원하다는 철칙 같은 것을 믿고 있었고, 사람이 인격이지 직급 자체가 인격은 아니라는 믿음도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지도력은 어느 부분에서는 얼마간의 장점이 되겠지만 다양하고 개성이 많은 신세대 부하직원들에게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데서 배(船)가 조금씩 새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내가 알게 모르게 거의 매일 지각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를 불러 조용히 타일렀는데 매우 죄송해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원인은 술이었다. 타 부하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는 거의 매일 밤 인사 불성에 이를 지경까지 폭음하는 특이한 직원이었다. 나는 빈한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해변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신세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 그는 공장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었는데 어떤 날 아침은 내가 직접 그의 기숙사 방까지 가서 술이 덜 깬 그를 사무실로 데려와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

IMF가 터지던 그해 10월 초순의 어느 날, 잔업 수당 반납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아침 일찍 출근하여 풍전등화 와도 같은 회사를 살려보려 몸부림치던 일요일 아침이었다. 그날도 출근 체크를 해보니 그는 자리에 없었다. 이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나서 전화가 왔다. 출근하다가 운전 중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있는데 처리하고 오 후에 회사에 도착하겠다고 했다. 이

후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혔다.

전날 밤에 의사인 친구와 밤새워 술을 마시다 병원의 레지던트 숙소에서 함께 자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그 날따라 새벽에 잠이 깼다. 좀 더 잘수 있었으나 항상 지각하여 부서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일찍 친구 집을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 새벽 6시경 회사를 향해 강변의 안개 낀 도로 위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을 치고 말았다. 운전석에서 충동을 느끼고 차에서 내려 쓰러진 사람을 살펴보니 즉사한 상태였다. 이어서 119구급차와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고 즉시 구속되었다.

그날 저녁, 해당 경찰서에서 겨우 그를 면회할 수 있었다. 구속 당시 혈중 알코올이 면허취소 수치라고 경찰관은 말했다. 늦은 밤 자정을 넘긴 후로도 술을 마셨고 3시간 정도 수면 후 다시 운전했으니 숙취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안개 낀 아침은 운전 중 시야 확보가 쉽지 않

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내가 속한 부서의 담당 임원은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게 문제 해결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일단 구속을 정지시키고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보게 한 후 그를 회사로 복귀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부하 직원의 가정은 결코 넉넉한 형편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의 부친은 노동일을 하고 있었고 모친은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다. 명문대를 나온 오빠 뒷바라지 때문인지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의 부모를 만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보상을 합의하라고 조언하며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다음날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있었다. 상가(喪家)에 간 부하 직원 즉 가해자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〇〇공대 출신의 엘리트니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봐달라고 말한 것이 피해자 가족들을 분노케 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당시 우리가 근

무하던 회사와 같은 계열의 선박 제조회사 현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이었는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아버지가 운화(輪禍)로 사망하는 변을 당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랬다. 청소원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았으며 아들을 많이 공부시키지 못하여 조선소 현장 노동자로 보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일터인 새벽 거리에서 술이 텅 깬 청년이 모는 차에 즉사한 것이었다. 게다가 가해자의 아버지는 고인의 빈소에 와서 자신의 아들이 〇〇공대 출신 엘리트 운운한 것이다. 피해자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는 있을 수 없고 법이 정하는 최대한도의 형을 받게 만들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죄는 밋지만, 인간을 미워할 순 없다.'

피해자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나는 그가 근무하는 조선소로 발길을 옮겼다. 피해자 아들의 상사(

上司)에게 설득을 요청할 참이었다.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고 젊은이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합의를 해주도록 상사가 설득하면 행여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이가 나보다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조선소의 과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잖아도 전화를 받고 상가(喪家)에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야 하니 합의를 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리고 고의성도 없었잖아요. 술 많이 마신 후 다음날 음주 측정계를 불면 숙취로 누구라도 그런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친구는 안 된다고 해요. 불쌍한 아버지를 저렇게 죽게 한 이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 아버지가 유족들을 너무 자극했어요. 〇〇공대 출신이라고 자랑을 았나, 직급이 주임이라고 떠들지 았나, 공고 졸업한 그는 피눈물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재는 노조위

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저래 제어할 수 있는 친구도 아녜요.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빈손으로 돌아온 나는 한숨이 났다. 그간의 결과를 보고하니 내가 오매불망 존경하던 임원은 드디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당신 아니면 누가 재를 살려요? 이대로 두면 재는 전과자 되고 끝장 아니오?”

이후 몇 달이 지나 부하 직원의 가족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했고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보았으며 구치소, 법원의 재판정(裁判廷)까지 구경하게 되었다. 검사의 구형이 있고 변호사의 변론이 끝난 후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는 ○○공대를 졸업하고 ○○차에 근무하는 재원으로 음주 수치가 높다고는 하나 얼마간의 수면은 과신한 탓도 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반성을 깊이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대략의 선고 내용을 기억한다. 그러나 본부장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나의 상사인 담당 임원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사를 떠났고 나는 부하직원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출소(出所)한 그로부터 연락이 왔다. 출감(出監)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손에는 그의 모친이 보낸 작은 선물이 들려져 있었다. 석방시키느라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써주어서 고맙다는 전언이었다. 나는 받을 수 없노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들 모자에게는 잔인했겠지만, 그 부하 직원으로 인해 회사의 구설에 자주 오르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부하 직원이 회사를 관두었는데 상사는 이후 선물까지 받았다는 소문은 뻔한 것이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다. 소주를 두어 잔 마신 상태의 그는 내게 따지기 시작했다.

“저희 부모님에게 하신 행동은 너무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거지?”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권유하신 거 말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낼 생각이었어?”

“합의금 삼천만 원은 우리 집 전 재산입니다. 전세금이었는데 이제는 월세 집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3년을 감옥에서 썩겠다는 말인가? 전도양양한 젊은 사람이?”

“구치소, 알고 보면 그곳도 그런대로 지낼만한 곳입니다.”

“.....”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아까

운 청춘을 돈과 바꾸겠다고 하니, 이후로 그를 만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재도약을 하게 된다. 그래서 패자의 서사는 불가피하게 분산과 수모, 파편화와 해체의 이야기를 담은 후 반전한다. 어디에서나 패자의 서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다시 자기를 추슬러 통합적 인격에 도달하려는 인물들의 고결성이다. 본심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지만, 자신을 위해 애쓰다가 불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IMF를 맞은 잔인한 그 해는 저물고 있었다.

부처님오신날과 함께하는 맑고 향기롭게 캠페인 안내 및 봉사자 모집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본모임은 친환경 체험마당, 녹색나눔장터,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맑고 향기롭게 홍보활동 등을 길상사 트랙에서 진행합니다. 친환경 체험마당으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공예품 만들기,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체험 이벤트 등이 진행되며, 녹색나눔장터에서는 의류리폼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리폼용품, 천연 화장품, 친환경 농산물 등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와 장터에 동참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02-741-4696)

소득이 없지만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5월 결연 대상자- 김순희 어르신(가명)

사고로 시작된 가난, 혼자가 된 어르신

“와따시와김순희테쓰, 교토테 우마레 마시따”(저는 김순희입니다.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순희(가명)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는 달리 일본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교토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해방 후 부산에서 경남여고를 졸업한 뒤 경남여중의 한문 선생님이로 교직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신여성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재였고 아름다운 미모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문 선생님이로 착실하게 활동할 무렵 어르신에게 큰 번고가 생겼습

니다. 장독대 위에 장을 가지러 갔다가 장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녀린 김순희 어르신의 뼈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살 기망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수술을 선택했고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뼈의 골절로 거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김순희 어르신은 26살 때, 당숙의 소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양반 가문의 자상한 남자라며 적극적으로 설득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남편은 혼전에 만난 여성과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부족

한 탓이라 여기고 친자식은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번번이 술을 마시고 어르신께 돈을 요구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폭행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지만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

어르신은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부족하지만 사는데 큰 무리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부양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2010년 갑자기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상하다며 주민 센터에 찾아가 사회복지사의 서류에 부양가족 확인란을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수십 년을 남으로 살아온 어르신은 급한 마음에 전남편 자식들의 소식을 수소

문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랭한 대답뿐,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방 한 칸에 외부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 1,500만 원 전셋집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턱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 운신하기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나마 창문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바꿔줘서 많이 따뜻해졌다며 함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어르신의 소득은 한 달에 기초연금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항상 부족하기만 합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어르신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순희 어르신에게 따뜻한 이웃사촌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벚꽃도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나는 계절에 상관없이 거의 매일 여의도 양카라공원에서 새벽 운동을 한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산뜻하여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절 따라 모양과 색깔과 향기를 달리하며 피고 지는 각종 꽃들을 감상하며 여의도 산책로를 걷는 것도 삶을 풍요롭게 한다.

금년에도 여의도 일대가 벚꽃 속에 묻혀버렸다. 벚꽃을 감상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출퇴근길이 혼잡하지만 화사한 벚꽃을 볼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면 평소 운동하던 장소를 벗어나 여의도 윤중로 벚꽃 길을 걷기도 한다.

새벽 일찍 윤중로 벚꽃 길에 들어서니 전날 늦게까지 북새통을 이루었던 벚꽃 길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텅 비어있었다. 텅 빈 길을 벚꽃을 감상하며 걷는 동안 나도 모르게 사색에 잠겨 버렸다. 여러 가지 일들이 스크린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간다. 나로 인하여 마음 상한 사람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도 한다.

그렇게 사색에 잠겨 걷고 있는데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다. 여러 해 전의 일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신부와 목발을 짚은 신랑이 벚꽃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왔다. 그 때도 4월이었다. 유별나게 하늘이 맑고 온갖 꽃들이 어우러져

남산의 벚꽃이 더욱 아름다웠던 날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잔인한 날이었다. 남산도 울었고 벚꽃도 울었다.

고아로 자란 하반신마비 신부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애절했고 목발에 의지해 서 있는 신랑의 체념에 찬 모습이 가슴을 저리게 했다 당연히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해야 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유명을 달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서둘러 마련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는 차마 할 수 없었다.

결혼식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보내온 편지를 읽고 서둘러 준비한 것이었다.

제 이름은 윤아령(가명)입니다. 그러나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보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된 것은 두 살 때 척추를 다쳐서입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한 분 계시지만 오빠는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부모님 눈에도 저의 존재는 망신덩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

님 덕택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살이 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대신 죽어야 했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댔습니다. 저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한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7일째 되던 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지방 소도시에 있는 액세서리 가내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단 하나 있는 오빠와는 영영 소식이 끊어지고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하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그곳에서 소아마비 장애로 목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졌고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고 맹서하며 서울로 올라와 지하실 방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탄불마저 꺼져버릴 만큼 습기 찬 곳이라 겨울에도 냉방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그런 곳에서 아이를 기를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첫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큰 슬픔이었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상처를 어루만지며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납땀을 하며 전세방이라도 하나 마련하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그렇게 10년을 열심히 살다보니 은행 통장에 입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심한 부종으로 부어오르는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에 물이 차고 요독증, 난청 등 합병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신장이식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천애고아에게 신장을 기증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죽지 못해 혈액투석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하느라 그동안 모아 두었던 저축마저 모두 날려버리고 우리의 꿈은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면서도 어쩌서 욕심은 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남편과 살고 싶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대장님, 너무 욕심이 많다고 꾸짖지 말아주세요. 죽기 전에 남편과 결혼식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누군가 신장을 제공한다면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장 제공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도 올려주기로 했다.

국립극장 뒤 남산 진입로 신남산 휴식공간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웨딩업체에서 연단과 의자를 준비해 주셨고 신부가 들어올 비단길도 만들어주었다.

52명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과 후원자, 내빈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장애인 단체장이 주례를 맡아주셨고 개그맨의 사회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대중 앞에서 웃음을 만들어 내던 개그맨도 이날만은 좀처럼 분위기를 밝게 만들지 못했다. 실내악단의 생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휠체어에 앉아 자원활동자의 도움을 받으며 비단길로 들어와 신랑 옆에 자리를 잡았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해 마련된 결혼식을 보면서 장내는 연민과 감탄으로 가득 찼다. 여기저기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다. 유명 가수의 축하까지도 슬프게 들렸다. 남산도 울고 벚꽃도 울고 있는 듯 했다.

이 이색적인 결혼식을 취재하기 위하여 MBC 보도국과 KBS 사랑의 가족 팀이 열을 올렸다.

이 결혼식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

로 퍼져나갔다. 얼마 후 시청자 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신장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다. “살았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되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났다.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미소가 절로 난다. 벚꽃도 환하게 웃고 있다.

일요특강 - 길상사 오감(五感) 자기경영 아카데미 한국 문화 재발견

세 번째 초청 강사.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고예준 이사
5월 29일(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세계 최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면 자금성, 만리장성에 위축되고, 유럽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에 주눅이 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한국인이 느껴야 할 자부심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왔습니까?

5월 특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고 있는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고예준 이사님을 초청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와 경제발전상을 '바로 보고' '다시 보는' 영상 강연이 진행됩니다.

내가 하는 말 구분해보기

글 • 고현희(공감대학 개발원장)

대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연관되어 떠오르시나요?

천천히 생각하여 떠오르는 것을 5
개 적어보세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소통이라는 단어를 적으셨다면 대
화를 통하여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와 연관된
것을 떠올릴 때 흐뭇했던 경험이 없
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떠오
르느냐는 질문에 솔직한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은 '불편'과 '불가
능한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소
통,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
불가능한 것이라는 답을 듣고 고개
를 끄덕이기는 하였지만,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대화의 기본은 '핑퐁'입니다. 핑퐁
은 탁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탁구
공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로 사
용합니다. 탁구를 칠 때 탁구공을 상
대가 받기 좋도록 넘겨야, 상대는 그
공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공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 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몇 분이나 아이에게 말할 때
즉, 잔소리를 할 때를 저는 '부모가
아이에게 탁구공을 쏘아 붓는다고
표현합니다. 쏘아지는 수많은 탁구
공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 넘길 수 있

을까요? 아이는 공을 받을 생각은커
녕 공에 파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명령도 탁구공은 아닙니다. 탁구공
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공을 던지는
것이지요. 그런 공은 다시 받아서 던
지기 어렵습니다. 어른들끼리도 상대
가 말을 듣든 말든 자신의 말만 마구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경우
는 마치 자동기계에서 나오는 야구
공같이 보입니다.

집중해서 상대의 말을 들으면, 내
느낌이 어떤지, 상대 느낌이 어떤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
습니다. 그것을 질문형으로 말하면
공이 다시 내게 넘어옵니다. 그것이
핑퐁입니다. 상대의 느낌과 원하는
것을 알기 어려울 때는 '앵무새 되기'
를 하면 됩니다.

아래의 경우 어떻게 말해야 대화
가 핑퐁처럼 연결될지 적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저녁을 먹
으면서, '엄마, 학교 운동장에 공사해
요. 끝나고 아이들이 한꺼번에 나오
는데, 공사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물건들을 차
고, 넘고 그랬어요.'

엄마의 말 _____

핑퐁처럼 말이 오고 갈 때 그 말들
을 분류하여 인식하면, 습으로 붙어
버린 말하는 법을 바꾸는데 효과적
입니다. 말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
니다. 우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말하
는 것과 상대를 주인공으로 하여 말
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말하는 것은 '나의 느
낌과 바람을 말하는 것과 '나를 비
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다시 나눕
니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하여 말하
는 것도 똑같이 2가지로 나눕니다.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하는 대답을 4가지로 구분하면 표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비판과 평가라는
것을 인식하면, 다시 그 말을 하게

	내 상태를 말하는 것	상대의 상태를 말하는 것
느낌과 바람을 말하는 것	그 물건들 때문에 다칠까봐 걱정되네.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건의해야겠다.	그 물건들 때문에 나오는데 불편했구나?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내가 학교에 갔을 때 그것들을 봤는데도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네. 나는 뭘 꼼꼼히 못보고 다닌다니까.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니? 끝나면 바로 집에 나와.

될 때 멈출 수 있습니다. 설사 그 동안의 습이 강하여 멈추지 못하고 해 버리더라도, 후회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후회하는 것이 내 말버릇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엄마가 '그 물건 때문에 나오는데 불편했구나?'라고 공을 받아 넘기면, 아이는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하여 다시 대답할 것입니다. '네, 나도 불편했지만, 넘다가 다치는 아이가 생길까봐 걱정됐어요.'

이런 멋진 핑퐁 공을 받는다면, 다시 아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절대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음, 선생님께 내일 말씀드릴까요?'

'그저 좋은데!'

그런데, 이 때 아이의 생각이 자랄 수 있는 질문을 더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저 좋겠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건을 치워야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물건들이 필요할 텐데……. 아이들이 다닐 때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 물건들 주위로 줄을 매어놓으면 어떨까요?'

*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니? 끝나면 바로 집에 나와.'라고 말하여 아이가 엄마와의 대화는 불편하고,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환점

글 • 김광석(나고아대학 교수)

무엇이 나를 자개농방업으로부터 유학의 길로 이끌었는가.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올 때 5년간 <고입 총정리>라는 두툽한 참고서 한 권을 들고 나온 어린 소년이며, 어릴 적부터 몸담은 나전 칠기 전통 공예의 기술을 내팽개치고 유학길을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더듬어본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모하기까지 한 방향전환의 저변에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객지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던 나는 공교롭게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부근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교복 입은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독학으로 공

부를 시작한 것이 훗날 내 인생의 방향전환에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다.

80년대 후반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아파트 건설 붐이 한창이었다.

이러한 건설 붐으로 인해 가구업도 성황을 이루었고 마찬가지로 자개농방도 호경기를 맞이했었다. 이때 나는 사업장을 가지고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호경기의 기회를 제대로 잡은 듯했다. 매출액도 날로 늘어만 갔고,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척척 진행되었다. 나는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젊은 사업가였다. 그러나 나쁜 사업자의 검은 손이 나의 사업장을 노리고 있었고 나는 어처구니없이 그 검은 손에 빠져들고

말았다. 젊음 하나만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단칸방 하나 얻을 돈도 없는 빈손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다가온 시련은 상상을 초월했다.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하고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내 생애 마지막 예비 노릇과 남편 노릇을 하려고 여행을 떠났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가족 여행을 즐겨워하는 철부지 두 아들을 지켜보는 나는 가슴이 찢기고 숨이 막혀왔다.

사업 실패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어려울 때 매정한 부모·형제가 싫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저 세상이 편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죽음을 선택하고 차를 몰고 나섰다. 모든 잡념을 잊으려고 라디오 볼륨을 크게 켜고 달렸다. 그런데 때마침 부산에서 중소기업 사장이 부도

로 인해 자살했다는 뉴스가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순간 그 중소기업 사장의 남은 자식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아버지의 아들은 죽었고 형제들 속에 나는 영혼이 잠든 것이다.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보자! 죽을 각오로 부모·형제를 멀리하고 새롭게 살아보라며 핸들을 돌려 방향을 틀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먼 타국에서 처자식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유학을 선택했다. 땀 한 톨 없는 놈이 유학이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잠도 자지 않고 '유한 택시' 운전을 했다. 죽을 각오로 임하자 생각보다 수입은 많았지만, 하루하루 약해지는 몸은 오랜 시간을 지탱하지 못했고 급기야 살아남은 것이 기적일 만큼의 큰 사고를 내고 택시를 그만두게 되었다. 학비를 반도 마련하지 못한

나는 혼자서 멀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한여름에 방수공사를 하는 노동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주위 사람들의 배려로 몇 달간의 노동을 무사히 마쳐 학비를 마련하게 되었고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물론 부모·형제에게는 상의는 물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당시의 나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만약 당시 나의 처지를 알려서 부모·형제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더라면,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왔더라면 아마 나는 더 큰 재앙을 일으키고 말았을 것이다. 내 부모는 물론이요, 형제들까지도 힘들게 했을지 모른다. 어찌 내 부모인들 궁지에 처한 자식이 걱정이 안 되었겠는가. 어찌 내 형제들은 이러한 나를 걱정하지 않았겠는가. 자의적인 나의 행동과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부모·형제에게 의지하려는 안이한 생각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것이 나를 멀리 타국으로 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여윌돈 한 톨 없이 유학 온 나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식당에서 그릇 씻는 아르바이트를 새벽까지 해야만 했다. 새롭게 태어난 나 자신과 30대 후반의 늙은 유학생이라는 특이한 신분의 나만이 존재했었다.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몇 시간 책을 보고 한두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학교에 나갔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가엾은 두 아들이 떠올랐을 뿐이었다. 내 가슴속 부모·형제의 빈자리에 나의 두 아들이 크고 든든하게 자리했다.

이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가족을 불러들일 수 있었다. 내 힘의 원천인 소중한 두 아들과 늘 갖은 고생만 시켰던 마누라와 함께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것도 순간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내게 남은 행복이다. 결단을 내리기 전에 정말 죽을힘을 다했는지 자신에게 한번은 물어봐야 하리라. 그리고 소임을 다하는 어른 된 모습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

영의정을 18년 지낸 황희 정승

글 • 김창수(희망아카데미 원장)

조선 왕조에서 단 한명의 대표적인 재상을 들라면 단연 황희(1363~1452) 정승이 꼽힌다. 황희 정승은 60여 년의 오랜 관직생활 중 18년을 조선시대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좌절을 극복하고 청렴의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 받고 있다.

황희 정승은 고려 공민왕 때에 장단이란 곳에서 태어나 20대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요즘의 국립대학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 학관으로 관직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벼슬을 한 지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자 황희는 고려의 신하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많은 고려충신들과 함께 두문동으로 들어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을 지켰다.

이성계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조정에 나아가 황희는 고려의 신하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신하들에게 배척당하고 귀양살이도 했다. 하지만 청렴한 성품과 백성을 위하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세종대왕 때에 영의정이 되어 18년간 청렴한 재상으로 백성들을 돌보며 평생을 바쳤다. 개에게 먹일 것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전에 개 한 마리 키우지 않을 정도로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였다.

황희 정승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살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지만 누추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관복 한 벌로 지내면서 직

접 채소밭을 가꾸는 등 몸소 검소함과 청렴함을 보여준 청백리의 표상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백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진실로 청렴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에 가장 걸맞은 삶을 살다간 황희 정승에게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18년 동안의 영의정 생활이라는 화려함 뒤에 그는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겪었다. 두 번이나 좌천하고, 세 번의 파직, 서인으로 강등되고, 귀양살이 4년 등의 역경이 있었다. 하지만, 청렴함을 바탕으로 두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인간주의자 황희의 삶은 변함이 없었다. 좌천되면 다시

복귀하고, 파직 되어도 다시 복직하는 오독이 같은 삶 속에서 변함없이 지켜온 뚜렷한 삶의 철학은 6백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등불처럼 시대를 비추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진실은 희망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거짓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순간의 영화는 있었을지 몰라도 후세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백성을 위하는 삶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수 없이 많은 탄핵을 받으면서도 지켜온 가치는 세월을 초월해 삶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황희 정승이 쉽게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오늘날 우리들 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수백 년 전을 살다간 청백의 재상이 있었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시대를 비추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와 함께 할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봉사자를 기다려요

활동 내용 : 홀로 어르신 가정 방문, 말벗, 청소, 산책, 모금 캠페인, 녹색나눔장터 등
(문의 : 02-741-4696)

깨달음의 길이 열린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탄생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을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이 외침은 장차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 즉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선언은 태자의 신

분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함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붓다(Buddha)'를 따서 만들어졌으며,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합니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을 성취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내려 오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나"를 찾겠다는 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원력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중생의 병의 종류에 맞춰 약을 주셨던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에 맞게 처방을 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인도 '가난한 여인의 등불'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연등을 공양하는 의미는 번뇌와 무지의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현우경 빈녀난타품을 보면 부처님이 영취산에 계실 때의 일로 밤을 밝힌 다른 등들은 다 꺼졌습니다. 하지만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지극한 서원과 정성으로 밝힌 등불만이 꺼지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 "이 여인은 등불 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 부처님 당시부터 등공양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부처님오신날 행사

봉축법요식 5월 14일(토) 오전 11시 / 극락전

※ 관ભ의식은 극락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제17회 길상 음악회 5월 14일(토) 오후7시 / 극락전 앞마당

• 출연진 : 작은 거인 김수철, 소리꾼 남상일 외

연등공양

•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법당등, 도량등)을 접수 받습니다.

• 문의·접수 : 길상사 종무소(02.3672-5945)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4일로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루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못생명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나눔 운동으로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

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1995년에 처음 시작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자비의 등’은 중앙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 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 신도를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 연등을 밝히는 것이며,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대상자 가정에 생필품을 전해드리는데 전액 사용됩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의 동참금은 최소 10,000원이며 입금처는 ‘결식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맑고 향기롭게)’입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 법정(法頂)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각 지역 모임 실정과 형편에 맞게 노인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모임에서는 독거노인 밑반찬, 김장 지원, 난방비, 의료비 지원, 차상위 독거노인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모임은 독거노인에게 점심 공양 나눔 및 도시락 배달을, 경남모임은 위안부 할머니 돕기 및 독거노인 결연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모임과 부산모임은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통하여 반찬을 나눠드리고 노인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길상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성북구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동전 한 닢부터 나누는 생활 속 실천운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법정스님·길상화보살 '무소유 정신' 계승 2016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4월 15일(금) 길상사 설법전에서 거행하였습니다. 2016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은 전국의 고등학생 46명에게 지원되며 법정스님의 무소유정신과 대원각을 불교에 희사한 길상화보살의 무주상보시의 뜻을 이어 23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자비실천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1명, 경기 7명, 강원 3명, 충청 1명, 호남 8명, 영남 6명입니다. 이사장 덕일 스님(길상사 주지)은 "법정스님께서 창립하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슬로건처럼 장학생 모두가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오염되지 않은 마음과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이 세상이 맑고 향기롭게 될 것이며, 오늘 받은 도움으로 나도 언젠가는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는 보시행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은 길상사 경내에 있는 법정스님의 진영각과 길상화보살의 공덕비를 참배한 후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모임은 1994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599명의 학생들에게 8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2016년 숲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안내

- 주제 : 숲과 전통시장을 찾아서
- 6월 4일 : 전북 모악산 김제관아, 금산사 - 김제 원평장(생선, 산지부산물, 고추)
- 7월 2일 : 충남 상왕산 목초지와 숲, 개심사 - 서산 서산장(여리굴절, 생강, 마늘)
-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만 65세 이하
 - 접수 : 6월 숲기행은 5월 16일부터, 7월 숲기행은 6월 7일부터 중앙 사무국으로 선착순 40명 전화 및 방문 접수
 - 준비물 :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비 준비)
 - 참가비 : 35,000원(장터 점심 식비 포함)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 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 시 결식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반반한 취소, 변동은 줄이고자 함)
-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접수처 : 중앙모임 02-741-4696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정기 자원 활동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는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 및 자살예방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2013년부터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기부문화 진작을 통해 법정 스님의 청빈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에 후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1명의 사연 소개와 다음카카오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과 더불어 1~2회 거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 의료비·난방비 지원, 사례 관리 등의 공익사업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금 캠페인에 함께할 대학생과 젊은층의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지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 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운

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길상사 오감 경영 아카데미' : 29일 (일)오전 11시 / 한국의 정신과 문화 /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목, 금요일(6, 19, 20, 26, 27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2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2, 9, 16, 23, 30일)/매월 첫째 일요일(1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 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8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4일)/오후 1시30분/사무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21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14, 29일/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3, 10, 17, 24, 31일)/세계일화실
- 의류 리사이클링 강좌모임 : 매주 금요일(6, 13, 20, 27일)/세계일화실
- 부처님오신날 친환경체험마당:14(토)/길상사 경내
- 녹색 나눔 장터: 29일/길상사 경내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정기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 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 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유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회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숲가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2시,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연등공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가족등, 영가등 : 10만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 영가등 : 3만원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참가 안내

자비의 등불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등행렬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일시 : 5월 7일(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종로 종묘앞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일시 : 5월 14일(토) 오전 11시

• 장소 : 극락전

※ 관불의식은 극락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부처님오신날 길상 음악회

•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7시

• 출연 : 작은 거인 김수철, 소리꾼 남상일

• 장소 : 극락전 앞마당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 각 회차· 동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매일 20가구씩 차례대로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회차 회향이 5월 19일(목), 2회차 입재가 5월 20일(금) 오후 2시에 극락전에서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5월 7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기도

• 일시 : 5월 24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 일시 : 5월 30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회향

• 일정 : 5월 20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아미타기도 입재 / 하안거 결제

• 일정 : 5월 21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5월 8일(일) 일요가족법회와 5월 14일(토) 삼천배 철야정진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관계로 휴회합니다. 5월 7일(토) 다라니기도는 제등행렬 동참관계로 4월 30일(토)로 앞당겨 봉행하였습니다.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초하루법회	5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금강경기도1회차 회향	5월 19일	오후 2시	극락전
금강경기도2회차 입재	5월 20일	오후 2시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회향	5월 2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아미타기도입재 및 하안거 결제	5월 2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5월 24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5월 3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사진·진각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런 물음을 남의 물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기 자신의 일로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 속에 부처님이 오신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2005년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법정스님 법문 中)



봉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축

5월 14일(음력 4월 8일)

불타 석가모니와 우리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2,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우리나라는 그 거리가 수만 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일상생활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 法頂

꽃보다 나뭇잎이 어여쁜 계절입니다.

이제 막 돌아난 듯한 연녹색 조그마한 새잎의 잎사귀는 보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이 향기로운 계절에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아귀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봉축법회를 극락전에서 봉행합니다. 또한 경내에서는 연꽃 만들기 체험, 친환경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저녁 7시에는 길상음악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길상음악회는 작은 거인 김수철, 소리꾼 남상일 님 등이 아름다운 자리를 꾸며 줍니다. 극락전에서 저녁 예불이 끝나면 연등 점등과 함께 무대를 열게 될 길상음악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밝히는 연등 하나 하나에 자비의 마음 오롯이 담아 주시는 것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색 연등이 나무들 사이에 걸려 더 아름다운 길상사에서 한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합니다.

